

“이보다 완벽한 은퇴는 없다”...김연경, 화려한 라스트댄스

18년만의 통합 MVP 예약...챔프전 이어 정규리그 MVP도 유력
남자부는 ‘트레블’ 앞장 레오·허수봉 경쟁 속 득점왕 비에나 도전

라스트 댄스를 화려하게 마친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은퇴 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도 도전한다.

김연경은 8일 열린 정관장과 2024-2025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결정 5차전에서 소속팀의 우승을 확정하고 기차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챔프전 MVP로 뽑혔다.

V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블로킹 7개를 잡아내며 올 시즌 역시 최다인 34점을 뽑은 뒤에 얻은 값진 선물이었다.

김연경의 챔프전 MVP는 데뷔 첫해였던 2005-2006시즌과 2006-2007시즌, 2008-2009시즌에 이어 네 번째다.

챔프전 MVP로 마지막 경기의 주인공이 된 김연경은 정규리그 MVP도 넘본다.

오는 14일 V리그 시상식 때 공개될 정규리그 MVP를 뽑는 기차단 투표는 지난 달 마쳤다.

김연경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득점 7위(585점), 공격 종합 2위(46.03%), 서브 8위(세트당 0.230), 리시브 효율 2위(41.22%)에 오르는 등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아웃사이드 히터이면서 득점은 국내 선수 중 1위이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소속팀의 정규리그 1위에 앞장섰다.

2년 연속 1000득점을 돌파하며 득점왕을 2연패한 괴물 공격수 지젤 실바(GS칼텍스·등록명 실바)와 챔프전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메가워터 퍼티워(정관장·등록명 메가)가 대항마로 꼽히지만, 김연경의 정규리그 MVP 수상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김연경은 2005-2006시즌부터 2007-2008시즌까지 3년 연속 소속팀의 정규리그 1위를 이끌고 MVP도 3연패 했다.

또 해외 무대에서 복귀한 첫해였던 2020-2021시즌에 이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2022-2023시즌과 현대건설에 1위를 내줬던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 MVP에 올랐다.

특히 올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은퇴’와

맞물려 동정표가 몰렸을 수 있다.

김연경이 정규리그 MVP마저 차지한다면 챔프전 MVP를 포함해 통합 MVP가 되는 건 2006-2007시즌 이후 18년 만이다.

남자부 정규리그 MVP 경쟁은 3파전 양상이다.

트레블(컵대회 우승·정규리그 1위·챔프전 우승) 위업을 달성한 현대캐피탈의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와 허수봉의 ‘집안싸움’에 득점왕에 오른 안드레스 비에나(등록명 비에나·KB손해보험)가 도전하는 모양새다.

레오는 정규리그에서 득점 2위(682점), 공격 종합 4위(52.95%)에 올랐고, 허수봉은 득점 4위(574점), 공격 종합 3위(54.13%)를 차지했다.

특히 레오는 올 시즌 막판 역대 득점 부문에서 박철우(은퇴·6623점)를 제치고 1위(6661점)에 오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레오는 삼성화재 소속으로 3번(2012-2013, 2013-2014, 2014-2015), OK저축은행에서 1번(2023-2024) MVP로 뽑혀 통산 5번째 MVP 수상을 노린다.

첫 MVP에 도전하는 허수봉도 화려한 공격으로 소속팀의 트레블 달성을 주도했다.

챔프전 MVP를 차지한 레오는 “정규리그 MVP는 (허)수봉이가 받아도 괜찮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맞서는 비에나도 각종 공격 지표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 무시할 수 없는 후보다.

비에나는 득점왕(846점)을 차지한 건 물론 공격 종합 2위(성공률 54.84%), 킥오픈 1위(성공률 65.42%) 등으로 활약하며 KB손보의 정규리그 2위에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특히 현대캐피탈 소속의 레오와 허수봉의 표가 분산되는 반면 6라운드를 포함해 세 차례나 라운드 MVP를 차지한 비에나는 득표 면에서 불리하지 않다.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V리그 시상식 때 3명 중 누구의 이름이 호명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흥국생명과의 정관장의 5차전 경기. 흥국생명 김연경이 5세트에서 자신의 현역 시절 마지막 서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프로기사 전성시대 이지현, 맥심커피배 우승

4월랭킹 톱10 중 6명이 삼십 대

두뇌 스포츠로 불리는 바둑은 이십 대가 최전성기다.

과거 선수층이 얇았던 시절에는 30대는 물론 40대에도 종종 우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삼십 대 프로기사가 결승에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 바둑의 절대 강자인 신진서(25) 9단은 만 18세이던 2018년 11월 처음 한국 바둑랭킹 1위에 올랐다.

이후 박정환(32) 9단과 선두 경쟁을 벌이다 만 20세인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64개월 연속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대회에서도 상대가 없어 보이는 신진서는 최근 인터뷰에서 “서른 살 이후에도 우승하는 기사가 되고 싶다”며 오랜 기간 정상급 선수로 활약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냈다.

그런 신진서가 삼십 대 기사에게 타이틀을 헌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열린 제26기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결승 3번기 최종 3국에서 이지현(32) 9단이 신진서를 불계로 꺾고 우승컵을 안았다.

2010년 프로 입단한 이지현이 대회를 3연패를 노렸던 신진서를 물리치고 5년 만에 맥심커피배 정상에 복귀한 것이다.

3월 랭킹에서 개인 최고인 5위에 올랐던 이지현은 4월에는 한 계단 더 뛰어오른 4위가 됐다.

이지현 9단 못지않게 강동윤(36) 9단의 올 시즌 활약도 화제다. 강동윤은 지난 3일 끝난 2024-2025 KB바둑리그 정규리그에서 11승 3패로 다승 1위를 차지하며 소속팀 영림프라임창호를 챔피언 결정전으로 견인했다.

한국기원이 발표한 4월 랭킹에서는 강동윤과 이지현뿐만 아니라 2위 박정환, 8위 원성진(39), 9위 안성준(33), 10위 김정현(33) 등 삼십 대 기사가 6명이나 포진했다. /연합뉴스

AI 페퍼스 박정아·박사랑, 여자배구 올스타 출전

19~20일 한국·태국 슈퍼매치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주장 박정아와 박사랑이 2025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올스타)에 출전한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리는 올스타 출전 선수 명단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슈퍼매치에 참가할 선수단은 2024-2025 V-리그 정규리그 기록과 포지션 밸런스를 고려해 꾸려졌다. V-리그를 대표하는 베테랑 선수단과 프로 데뷔 5년차 이내 선수진으로 구성됐다.

한국 올스타 명단에는 강소휘(주장·한국도로공사), 박정아·박사랑(이상 페퍼저축은행), 임명욱(한국도로공사), 염혜선(정관장), 이다현(현대건설), 김다은·김세빈(이상 한국도로공사), 이선우(정관장), 정윤주(흥국생명)가 이름을 올렸다.

태국 올스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2시즌 동안 함께했던 타나차 쑤삭과 닛타나차 짜이선(일본 PFU 블루캐츠), 통영 KOVO컵에 참여했던 돈빈 신포(아란마레 야마가타), 수파와디(춘부리) 등이 선발됐다.

한국 올스타 감독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을 이끄는 강성형 감독이, 태국 올스타는 키아



박사랑



박정아

티퐁 맞차파끼엔가이 태국 배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여자배구 올스타는 2017년 태국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열렸지만, 코로나19로 2020년 중단된 뒤 올해 6년 만에 재개된다.

19일과 20일 경기 시작 1시간 전에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와 남자 밴드그룹 데이브레이크, 태국

가수 암추티마 등의 문화 공연도 마련돼 있다.

티켓 판매는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티켓링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현장 구매는 매표소(운영시간 19일 오전 11시부터, 20일 오후 3시부터)에서 가능하다. 좌석은 모두 지정석이며 1층은 2만원, 2·3층은 1만원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유승민 회장, 2036올림픽 유치 추진 공식화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유승민 회장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IOC 본부를 방문한 바흐 위원장과 면담했다.

유 회장이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난 건 체육회장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유 회장이 지난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화 통화에서 바흐 위원장이 “이른 시일 안에 로잔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면담에는 유 회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명수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회장과 김 지사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전주시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산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대회 개최지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했다.

이어 콜린다 그라바르 카타르모지 하계올림픽 미래유치위원회 위원장과 크리스토퍼 두비 IOC 올림픽 수석국장 등 실무진도 만나 전주 하계올림픽

픽의 대회 콘셉트와 준비 방향을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은 앞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앞서 참고해야 하는 IOC의 가이드라인, 절차,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6년 올림픽의 국내 유치를 위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OC는 올림픽 유치 도시 선정에 대해 ‘대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IOC 미래유치위원회는 ‘지속 협의’ 단계에 있는 각 유치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최종 권고안은 IOC 집행위원회에 제출되며, 집행위는 이를 검토한 뒤 특정 도시와의 ‘집중 협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 IOC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총회에서 전체 IOC 위원의 투표를 통해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다.

한편 유 회장은 바흐 위원장의 뒤를 이어 IOC를 이끌 커스티 코네티리 당선인파도 만나 인사했다.

코네티리 당선인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에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돼 8년간 활동했고, 유 회장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 IOC 선수위원에 선출됐다.

둘은 2016년부터 4년간 함께 IOC 안에서 함께 활동하며 우의를 다졌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송준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GAC 기획공연 포커스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일시 : 2025-04-17(목)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